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5. 10. 8 | 통권 제63호(2015-03)|

한국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특징*

[요약]

-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기업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재생형, 대안경제형의 네 가지 유형을 채택함.
- 사회적기업들은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이 유형들에 모든 사회적기업들을 명확히 분류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노동통합형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노동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재생형과 지역재생을 추구하는 대안경제형 사이에도 공통분모가 큼.
 - 연구의 목적과 유형분류 방법론에 따라 유형 구분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수도 있음.
- 조직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보면 유형뿐만 아니라 세대별 차이가 드러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전후한 시기까지 등장한 1세대 사회적기업과 그 이후 등장한 2세대 사회적기업을 나눌 수 있음.
 - 1세대 조직의 전형적인 성장경로는 자활사업단에서 시작해서 개인사업체, 혹은 주식회사라는 영리회사의 경로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가는 것임.
 - 2세대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유인되어 들어온 집단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대안을 추구하는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음.
-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1세대 사회적기업이나 역사가 짧은 2세대 사회적기업 모두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공공시장이나 공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 공공시장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찾는 대안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함.

* 이 글은 황덕순 외(2014),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 사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본문의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징에는 박준식(한림대),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연구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은 원문을 참고할 것.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범위

-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제의식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확산 때문이다.
 -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운동에서 주목한 것이 유럽에서 대안적인 조직으로 등장한 사회적기업임.
 -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유럽의 사회적기업 연구네트워크인 EMES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임(Borzaga and Defourny(eds.), 2001).
 - 사회적기업 이전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사회적기업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한 것임.
- 정부정책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넘어섬.
 -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정책에 따라 등장한 조직들인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공사 등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사용되기 이전에 활동하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조직들도 있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본격적인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에 도시 빈곤지역에서 활동하던 생산자협동조합 등은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원형으로 볼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함.
 - 또한 유형별로 사례기업을 선택하여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사례기업을 선택할 때는 협동조합,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직들의 특성도 고려함.
 - 이 글에서 선택한 사례들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라 모범사례들이 대부분임.
 - 앞서 나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왔고, 후발 사회적기업들, 혹은 현재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다양한 유형의 등장·확산

-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정책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임.
 -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응해서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근로를 시행함. 일부 공공근로 사업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사업수행에 참여함.
 -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시행(2000년 10월)과 함께 자활사업 형식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
 - 자활사업의 제도화는 우리나라에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등장 및 제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노동통합형이 이 글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유형임.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노동통합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제가 확산됨. 변화의 계기는 2003년 참여정부의 등장임.

-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시행과 이 사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의 전환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본격화의 주요 계기가 됨.
 -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이 글이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의 두 번째 유형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된 것은 자활사업의 무료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기반을 둔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됨.
 -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 전달 수단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넘어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노력과 요구도 점차 확산됨.
 - 특히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희망근로로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비즈니스사업 및 마을기업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 확대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흐름이 본격화됨.
 - 이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적기업 이전에 이미 원주, 홍성 등 여러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합된 여러 모델들이 등장함. 이는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등장과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음. 지역재생형이 이 글에서 채택한 세 번째 유형임.
 -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적기업의 만남도 확산됨. 사회적기업의 전통적인 목표인 노동시장통합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재생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됨.
 - 지역화폐, 공정무역, 공정여행, 로컬푸드 운동 등 호혜와 평등에 기반해서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운동이 사회적기업으로 조직화되는 흐름을 '대안경제형' 사회적기업으로 유형화함.
 - 이들은 사회혁신형 사회적기업, 혹은 신사회운동형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대안경제형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네 번째 유형임.
- ###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징
-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 노동통합형의 사례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일과나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자활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주식회사로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추진 중
 - 함께일하는세상: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활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주식회사로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추진 중
 - 동천: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작업장
 - 사랑의 손맛 행복도시락 노원점: 서울특별시 소재, 자활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SK의 사회공헌과 연계된 협동조합의 지점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사례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업종을 보면, 청소, 돌봄, 급식, 봉제업 등으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이들 기업의 종사자들은 주로 미숙련의 중장년층이거나 장애요인을 가진 계층에 집

- 중되어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숙련향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비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기술력과 생산성 부족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기업들의 주요한 매출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시설의 청소 및 관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공공급식, 공공조달 등을 통해서 공공시장에 접근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이들 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사례기업들의 노동통합의 경로는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보여주는 여러 유형 중에서 재정적인 자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재정적 자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재정적 자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례기업들의 노동통합 경로는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담지 못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천모자를 제외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적인 노동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없었음. 함께 일하는세상이 내부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규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님.
- 유럽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들이 직업통합을 위한 교육훈련과 더불어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례기업들은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연계를 조직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

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한국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유럽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참여자들보다 근로능력이나 취약요인 측면에서 좀 더 양호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동의 범위가 좁은 것을 반영하기도 함.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선택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휴먼케어 :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자활사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 도우누리 : 서울특별시 소재, 자활사업에서 시작하여 개인사업체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다솜이재단 : 서울특별시 소재, 교보생명이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재단법인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유지 등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함.
 - 인증 사회적기업이 모든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사회적기업 가운데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기업이 40.3%에 이르는 반면, 사회서비스제공형은 5.1%, 혼합형을 합하더라도 18.5%에 불과함.
 - 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적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선택한 본 연구의 사례기업들도 2개소는 사회서비스제공형, 1개소는 혼합형, 1개소는 일자리제공형임.
- 자활사업단으로 출발한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일자리 제공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제공형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 제공인 도우누리나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증을 받은 휴먼케어 가 여기에 해당됨.
 - 조직 설립 초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관리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기보다 안정과정에 들어선 사회적기업에서는 일자리의 유지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과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과제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기업들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나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법적인 조직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방식도 중요함.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나 도우누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해내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 중요함.
 - 주식회사인 휴먼케어의 경우 종업원지주제 기업으로서 총회에서는 1인 1표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추구함.

- 비영리법인인 다솜이재단의 경우 재단법인으로서 사례기업 가운데 가장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음. 이사회에 사회공헌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모기업과 전문가, 기관대표가 참여하고 있어서 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이라는 특징을 보여줌.
- 사회서비스제공형에서 선택한 사례기업들은 사회적 목적의 추구라는 점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들이고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고 있지만 모두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목표는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

- 지역재생형의 사례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하이원베이커리: 강원도 태백시 소재,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된 재단의 자활사업단
 - 춘천도시농업센터: 강원도 춘천시 소재, 비영리단체
 - 동네방네: 강원도 춘천시 소재, 협동조합
 - 천안주거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자원 등을 발생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업 주체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들은 일부 잘 알려진 사례들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명성이나 지명도, 활동영역 등을 갖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역 나름의 독특한 사회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지역적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임.

- 지역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아직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으며, 한두 명의 역량 있는 창업자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만들어진 신생 기업들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그 때문에 축적된 활동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음. 고용 규모 또한 매우 영세하고, 대다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함.

-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들 중 일부는 유사한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광역, 혹은 전국적 활동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험과 모범적인 사례 등을 공유하거나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발한 확장을 주도하고 있음.

- 지역재생형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활동 내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이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거나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은 지역 나름대로 적재적소의 자원배분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잠재적, 혹은 유휴 공유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함.

· 지역의 '사회적 벤처'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지역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대안경제형 사회적기업

■ 대안경제형에서 분석한 사례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원주푸드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소재, 협동조합

- 농부장터: 대구광역시 소재, 협동조합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빈고: 서울특별시 소재, 비공식조직

■ 대안경제형에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의 특징보다는 각 사례들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 대안경제형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사회적기업들이 갖는 제도적 동형화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를 가짐.

· 사회조직으로 존재하던 많은 조직이 경제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제도적 동형화와 더불어 진부해질 가능성이 커짐.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면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하며,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게 됨.

· 구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초기의 정신을 잃으며 변질되는 현상은 이들 조직의 문화를 이끄는 리더십의 문제에 기인함. 카리스마의 일상화는 구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사회적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상임.

- 대안경제형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사회를 추구하면서 제도화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원주푸드협동조합, 대구농부장터는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먹거리의 유통을 담당하고자 함.

· 원주푸드는 원주협동경제사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친환경급식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생산자의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료도시락공급사업이나 슬로푸드식당을 운영함.

- 대구농부장터 또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 소농의 먹거리를 유통하고 있으며, 텃밭가꾸기, 생산지 방문, 치유농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적정기술네트워크의 공동결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이들이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강사단이 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동체은행 빈고는 해방촌의 빈집 거주자 및 빈가게, 빈마을로 형성된 관계망을 기반으로 공동체은행 빈고를 설립하여 상호부조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자조금융을 운영함.
-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경제적 자립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안경제형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줌.
 - 많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극심한 경쟁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1인 1표라는 형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에 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음.
 - 단순이용과 주체적인 참여의 구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협동하여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적절한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농부장터의 여러 운영원리들은 민주적 운영과 경제적 자립을 양립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례분석 비교와 함의

-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발전과정 및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네 가지 유형인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재

생형, 대안경제형을 판별하였음.

- 연구의 목적과 유형분류 방법론에 따라 유형 구분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수도 있음.
- 특히 대안경제형의 경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면 새로운 유형으로 분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음.
- 사회적기업들은 복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지만 이 유형들에 모든 사회적기업들을 명확히 분류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노동통합형에서 출발해서 여전히 노동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재생형 및 지역재생을 추구하는 대안경제형과의 사이에도 공통분모가 있음.
 -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 유형은 커다란 강물에 섞여 흘러가는 큰 물줄기들과 같이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금씩 뒤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물줄기로 섞여 들어가기도 하며, 새로운 물줄기가 갈라져 나올 수도 있는 것들임.
- 조직의 발전과정 측면에서 보면 유형뿐만 아니라 세대별 차이가 드러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전후한 시기까지 등장한 1세대 사회적기업과 그 이후 등장한 2세대 사회적기업을 나눌 수 있음.
 - 1세대 조직의 전형적인 성장경로는 자활사업단에서 시작해서 개인사업체, 혹은 주식회사라는 영리회사의 경로를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가는 것임.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2012년 12월)되기 이전에 사회적기업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갖춘 법적인 조직형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립해야 하는 자
활공동체 및 사회적기업들에게 영리회사의
경로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례기업들은 영리기업이면서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장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음.

- 2세대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유인되어 들어온 집단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이를 통해 대안을 추구하는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음. 지역재생형에서 다른 일부 조직과 대안경제형에서 다른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됨.

-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1세대 사회적기업이나 역사가 짧은 2세대 사회적기업 모두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본 연구의 사례기업들도 당기순손실을 안고 있거나 비록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 등이 없는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공공시장이나 공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 대안경제형의 경우에도 원주푸드협동조합이나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처럼 공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음. 사회공헌형의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시장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찾는 대안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Borzaga, C., and Defourny, J. (eds.)(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황덕순·박준식·장원봉·김신양(2014),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심층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287-6500 / hds@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방하남 / 편집인: 오상봉 / 편집·교정: 정 철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6603 / Fax : 044-287-6649 / www.kli.re.kr